

학회소식

1. 제88회 정례학술발표회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일시: 2009년 6월 26일(금) 오후 2시~69시

장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 제1주제 南宋代 여성의 持參財産所有와 그 실태
 발표자: 남은혜(경북대학교 대학원)
- 제2주제 宋代 提點刑獄司의 기능변화와 그 의미
 발표자: 서지영(경북대학교 대학원)
- 제3주제 한국에서의 천주교의 전래와 평등
 발표자: 전종익(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4주제 일본 大正時代判決이 우리 민법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批判的 檢討
 발표자: 윤태영(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2. 한일 법사학자 공동연구회

주제: 동아시아에서의 근대 민법의 전개

일시: 2009년 9월 18일(금) ~ 20일(일)

장소: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 · 국학문화회관

주최: 한국법사학회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본 一橋大學 法學研究科

1) 학술발표회

- 제1주제 韓國民法典의 編纂과 그 比較法的 位置
발표자: 鄭鍾休(全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教授)
- 제2주제 植民地期 慣習法的 形成과 韓國家族法
발표자: 鄭肯植(서울大學校 法科大學院 教授)
- 제3주제 西歐近代法的 繼受와 琉球·沖繩
발표자: 宮平眞彌(流通經濟大學 法學部 教授)
- 제4주제 日本近代法體制的 歷史的 特質
—帝國憲法(1889年)·明治民法(1898年) 體制論—
발표자: 水林 彪(一橋大學 大學院 法學科 教授)
- 제5주제 20世紀 初頭の 日本民法學에서의 ‘判例’와 ‘法源’
—末弘嚴太郎의 所說을 中心으로—
발표자: 杉本好央(大阪市立大學 法學 研究科 教授)

2) 역사탐방

유교박물관, 도산서원, 안동 법흥동 5층 전탑, 하회마을

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우리 학회가 편집한 『韓國近現代의 法史와 法思想』(민속원, 2007) 및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이 2009년 6월 24일에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주관하는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함께 축하한다.

4. 법원도서관 법제사 관련 자료

- 1)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1889년부터 1918년까지의 민사판결문 14,641건에 대한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을 디지털화하였으며, 판결문 별로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및 판결요지를 제공하였다.
- 2) (朝鮮)高等法院判決錄을 원문과 번역문을 출판하고 이를 전자북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1권(1908~1912년도분)에서 제6권(1919년분)까지 서비스하고 있으며, 출판은 제8권(1921년분)까지 되었다. 또한 玉名友彦의 『朝鮮刑事令釋義：附 令狀並刑執行の取扱に就て』(1944년 발행)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위 홈페이지에서 “귀중본 국역자료”로 접근하면 이용할 수 있다.
- 3) 귀중본/고서를 전자책(e-book)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행본 [일본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자료집, 법령집, 법원사”로 분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go.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5. 타이완(臺灣) 일제통치기 법제사 관련 자료

- 1) 타이완(臺灣) 일제통치기 법원기록 데이터베이스(Database of Taiwan Colonial Court Records Archives, TCCRA): 대만 각지방법원이 소장하고 있는 사법문서를 전산화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학술연구목적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國立臺灣大學校 도서관과 법학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tccra.lib.ntu.edu.tw/tccra/develop/>

2) 대만법실증연구 데이터베이스(Taiwan Database for Empirical Legal Studies, TaDELS): 國立臺灣大學 法學院이 학교와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학술프로젝트로 2006년부터 수행한 결과이다. 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① 법률문건 데이터베이스(Legal Archive Database): 인권기록 및 각종 법률문서 등이다. ② 법률영상 데이터베이스(Legal Image Database): 공공장소 또는 사적 공간의 게시판, 경고표지판 등으로 ①과 연계하면 생생한 법률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일제통치기 통계데이터베이스(Taiwan Colonial Statistics Database):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하였으며, 법률분야는 주로 “경찰, 사법, 범죄통계”이며 기타 호적, 토지 등도 있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 대만법실증연구 데이터베이스: <http://tadels.law.ntu.edu.tw>(①, ②)
- 일제통치기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tcsd.lib.ntu.edu.tw/tcsca/index.php>(③)
- 연락처 및 ‘매월연구통신’ 구독문의: e-Mail: tadels.ntu@gmail.com

이 자료를 이용한 대만연구 및 비교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臺灣法實證研究資料庫(TaDELS)의 소개서 한국어 요약본 정리

6. 한일 법사학자 공동연구회 보고

1) 취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본의 히토츠바시대 법학연구과, 중국 인민대 법학원과 공동으로 2007년부터 아시아교육연구거점사업(주제: 동아시아에서의 공통법의 기반 형성을 향하여)의 일환으로 매년 ‘기초법부문 공동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에서 한국법사학회와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번 연구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양측 발표문을 일주일 전에 번역·교환하여 사전에 준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발표문과 토론문을 『법사학연구』

에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본문 참조).

일본측 대표자인 水林 彪 교수는 日本學士院(한국의 학술원) 회원이며, 일본법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민법에서 출발하여 법제사로 범위를 확대 하며, 천황제에 대한 연구서로 명성이 높다. 일본측 대표자인 水林 彪 교수는 갑작스런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는데, 발표문과는 별도로 그 전후의 사 정에 대한 요약을 제출하고 이를 林 眞貴子 교수가 대독하였으며, 연구회는 高橋 良彰 교수가 진행하였다. 水林 彪 교수는 한국측 발표에 대한 질문을 참석 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연구회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e-mail 등으로 답변하 기로 하였다.

2) 참가자 명단

水林 彪(Mizubayashi Akira, 一橋大學 大學院 法學研究科 教授, 日本法制史)
 高橋 良彰(Takahashi Yoshiaki, 山形大學 人文學部 法經政策學科, 准教授, 民法)
 林 眞貴子(Hayashi Makiko, 近畿大學 法學部, 准教授, 日本近代法史)
 宮平 眞弥(Miyahira Shinya, 流通經濟大學 法學部, 准教授, 日本法制史)
 杉本 好央(Sugimoto Takahisa, 大阪市立大學 法學研究科, 准教授, 民法)
 小野 博司(Ono Hiroshi, 甲子園大學 總合教育研究機構, 助教, 日本近代法史)
 田中 亞紀子(Tanaka Akiko, 三重大學 人文學部 法律經濟學科, 准教授, 日本近代法史·刑法)

中網 榮美子(Nakaami Emiko, 早稻田大學 法務教育研究센터, 次席研究員, 日本法制史)

李 英美(明治大學 商學部, 特任教授, 韓國法制史·日本法制史)

天野 嘉子(Amano Yoshiko, 慶應義塾大學 大學院 法學研究科 博士課程, 日本近代法史)

朴 銀珠(一橋大學 大學院 法學研究科 博士課程, 刑事法)

- 정종휴(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제사, 민법)
심희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제사, 형사법)
김창륙(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제사, 법사상사)
정공식(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한국법제사)
권재문(숙명여대 법학과, 조교수, 민법)
조지만(이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국법제사)
서희석(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민법)
문준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국법제사)
이우석(경성대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민법)
박인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민법)
윤태영(이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민법)
안종철(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근대사)
권경은(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민법)
이원규(경북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법사학)
다나카 토시미츠(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한국법제사)
김민정(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한국법제사)
김영석(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한국법제사)
손경찬(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한국법제사)
김백경(부산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한국법제사)
최종호(연세대학교 법학과, 학부생)

일본측에서는 모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20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일본 참석자는 9월 18일 2시에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5시 30분부터 학술대회를 진행하였으며, 19일 종일 열띤 토론을 하였다. 특히 일본측 발표는 근대민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 1920년대 일본민법학계의 분위기, 그리고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16세기까지는 조선과 교류가 많았던 오키나와의 상황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일본학자들은 한국민법전의 편찬과정, 호주제의 형성 과정 등

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19일 중식 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박물관을 관람하여 한국문화의 진수를 맞보았다. 18일 저녁은 국학진흥원 내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의를 나누었고, 19일 저녁은 김희수 변호사의 지원으로 낙동강변의 식당에서 정담을 나누었다.

20일에는 안동 일대 역사탐방을 하였다. 오전에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유학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 陶山書院을 답사하여 유교문화의 교류, 한국의 전통적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중간에 안동역 부근의 고려시대의 法興洞 5층 博塔과 幢竿支柱를 감상하였다. 탑과 지주만 남아 있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전부를 압도하였다. 점심 식사 후에는 부용대에서 河回마을 전체를 조감하였고, 하회마을을 살펴면서 살아있는 역사를 몸으로 느꼈다. 하회마을에서는 탈춤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고 마을을 전체를 보고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음미하였다. 안동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동주를 시음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짧지 않은 1박2일의 토론회, 하루의 역사탐방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사 학자와 민법학자들은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 많은 교류와 깊은 대화가 서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해를 높게 할 것이다. 계속되는 교류의 마당을 희망한다.